

월요광장

비대면의 기술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예정되었던 음악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의 형식으로 청중들에게 선을 보인다. 토요일 오후 '네이버 라이브'로 생중계된 서울 문화문국악당의 '윤당여관 음악회' 공연의 시청자 집계를 보니 1300여 명이었다. '국악' 장르 공연이다 보니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래도 실제 공연장의 좌석수가 140석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실제 라이브 공연을 했을 때보다 열 배 가까운 청중을 얻은 셈이다. 공들여 준비한 공연을 뜻하지 않게 텅 빈 공연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던 음악가들에게 한 줌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는 음

악가들에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그것도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티켓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크지 않는 공연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공연 중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음악 문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내의 어느 지방 도시 시립 교향악단이 예정된 공연들을 취소하는 대신 무관중 공연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SNS상에서 어느 애호가도 냉소를 던졌다. "시립예술단 공연이 '라이브'니까 보러 가는 거지, 인터넷상에서야 일류 연주단체의 명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굳이 방향 연주를 찾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을 강타한 이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세계적 공연 단체들이 이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연 중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월 19일까지 모든 공연이 취소되면 베를린 필하모닉의 경우도 그동안 유료로 제공되던 온라인 공연 아카이브 '디지털 콘서트홀'을 4월 한 달 동안 모든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공연 취소 사태로 인한 중소 공연 단체들의 줄도산 위기가

는 암울한 현실이 있지만, 온라인 음악 감상으로만 말하자면 음악 애호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듯 디지털 매체 기술 또한 양면성을 갖는다. 이른바 '디지털 민주주의'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능력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 점은 지역 문화와 관련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 기술은 문화의 분권화와 '탈중심화'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거꾸로 '중심화'를 가속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술을 어떻게 '탈중심화'의 방향으로 선회하는가에 있다. 그동안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던 지역 공연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원래 '대면의 기술'을 발휘해야 했던 이들이 뜻하지 않게 '비대면의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것은 공연계만의 현실이 아니다. 예컨대 대학이 또한 그렇다. 이번 학기 2주간 개강이 연기된 데 이어 추가로 2주간 비대면 원격 강의를 시행되고 있는 한편 콘서트홀을 교수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어쩌면 이 혼란이 수습되고 난 이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 나타나

고 있는 현상이지만 원격 강의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 고등교육의 '중심화'를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환경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동영상 강의와 원격 수업이 일상화 될 경우 지역의 대학은 과연 어떤 강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매체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대체일 뿐만 아니라, 이 기술에 내재된 '탈중심화'의 잠재력을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활동과의 지속적 연계를 전제로 지역적 의제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플랫폼들이 공연계와 대학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 생태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요구되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매체에 기반한 '비대면의 기술'을 장소에 기반한 '대면의 기술'과 긴밀히 연관시키는 것이다.

일상의 심미화와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 제기나 토론, 상호 소통의 대화를 '비대면의 기술'과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것인가?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그간 '비대면'이나 다름없었던, 상업화되고 사물화된 공연예술이나 교육이 관객이나 학생과의 새로운 '대면'을 통해 그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물음이기도 하다.

社說

유흥가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외면할 건가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광주 도심 유흥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한다. 평일·휴일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한데 어울려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엿그제 찾은 광주시 동구 금동 구시청 사거리와 동명동 일대 술집 및 클럽은 심야 시간에도 20~30대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술을 마시며 춤도 출 수 있는 일부 유흥업소는 손님이 꽉 들어차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다. 대부분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술집을 찾은 한 대학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 "20~30대는 잘 걸리지 않고 대부분 증상도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안이한 인식이 젊은 층을 지역 사회 감염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점도 유흥업소의 집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다. 어제 기준 확진자 8897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396명(26.93%)으로 최다였다.

정부가 그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 시설에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달라고 권고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부는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감염병은 모든 국민이 예방 활동에 참여해야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유흥업소들도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젊은이들도 자칫 무분별한 행동이 개혁 연기 등 예방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 쪼개기' 반발 순천 민심 심상치 않다

"도둑당한 국회의원 1명을 돌려다오" "왜 우리가 광양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까?" "순천시 해룡면 독자 선거구 확정 무효" 순천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다. 이 중에는 "28만 순천 시민 개무시하고 총선 이기겠냐?"라는 다소 과격하고 도발적인 내용의 현수막도 있다. 정치권의 순천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 시민들의 반발에는 이유가 있다. 순천시 인구는 2월 기준 28만1347명. 선거구 상한선 기준(27만 명)을 넘겨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두 개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지만 여야 8당 원내대표가 인구 5만 5000명의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리해 인근 광양시 등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당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데 순천을 분구하지 않고 단일선거

구로 묶으려면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2150명 이상 해당하는 지역만 떼어내면 되는데도 왜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떼어 냈을까? 국회의 '선거구 쪼개기'를 지켜본 순천 시민들이 품게 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남의 다른 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아무튼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매우 통렬하다. "순천 시민 입장에서선 침대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의 발을 침대에 맞춰 질라남을 당했다" "이러한 선거구 확정은 다음에 또 바뀌게 되고 해룡 주민은 한번 쓰고 버릴만한 비닐우산 취급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더구나 이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까지 감행함으로써 순천 민심 이반에 더욱 불을 붙였다. 해룡면에서 시작된 순천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을 치유할 획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한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 내자



손시안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지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위문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 양국은 서로 돕고 '동주공제'(同舟共濟)하는 우호적인 이웃 나라인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한국에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전염병 방역을 지지할 것이며, 한국과 손잡고 빠른 시일 내 전염병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국민 및 세계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함께 지킬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수많은 한국 친구들은 시 주석의 위로 전문이 한국 코로나 방역에 대한 힘 있는 지지라며 한중 양국은 진정한 친구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반드시 감염증을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줬다.

한국은 중국의 좋은 이웃이다. 중국 국민이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를 포함한 한국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각계각층은 중국 국민들에게 대량의 방역 물자와 소중한 정신적 지지를 보내줬다. 이에 중국 국민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을 대표하여 영사 구역 지방 정부와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국도 역시 한국의 좋은 동반자다. 한

국의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량의 방역 물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주고 있다.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조율 하에 최근 중국 상하이, 충칭, 광저우, 다롄, 저장, 쓰촨, 산둥 등 10여 개성·시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에 대량의 마스크 등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영사관과 영사 구역 내 중국 교민들도 현지 정부와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방역 물자를 전달했다.

한중 양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다. 현재 중국의 방역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좋은 테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방역 역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광주와 전라도 지역의 확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협력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중화 양국 국민들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국의 '약호남' 사무국(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명언은 호남 지역 및 호남 지역민이 한국에서 중요한 지위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지역민은 언제나 근면하고 용감하며 정과 의리를 중시해왔다. 호남 지역민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이번 전염병 사태 또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고난 중에 진심을 볼 수 있고, 비운 후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함께 전염병과 맞서는 과정에서, 또한 전면전에 승리한 후에 중화 양국의 전략 협력과 동반자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양국 국민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와 중국 지역 간의 우호 교류 및 협력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라 화이팅! 중국·한국 짜이요!

기고

폐교를 코로나19 거점 음압 병실로



강현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경도단계 6단계'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대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3월 초 "정부가 의료·격리 시설을 구축할 때 전국에 구성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치, 구성 등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호남 지역의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지난해 7월 광주시건축사회와 전남도건축사회, 전북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합동으로 발족되었다.

우리 건축사회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해 지역 거점 재난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폐교와 유휴 시설 등을 복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환경 기준 개정 등 관련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682개에 이르고, 이 중 170개(25%)는 활용처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폐교된 곳이 138개로, 경북(142개)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광주는 1개로 조사되었다.

오지에 있는 폐교는 부동산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으니 뚜렷한 활용 방안이 나오기 어렵고 제초, 시설 보수 등 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수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마침 지난 3월에는 광주시에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이 시행되었다.

음압 병상이란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병상이다. 병실 안쪽으로 진입하려면 두 개의 문(인터락)을 통과해야 하는데 인터락 사이에는 병실을 드나드는 의료진이 장비 착용을 점검하고 환자와 접촉이 잦은 부위를 소독할 수 있고 음압 측정기와 소독제가 갖춰진 '전실'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는 배기구와 함께 밀폐된 창문과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도 설치된다.

음압 병동은 외국 같은 경우 OECD 평균이 약 70~73% 정도이고 우리나라

는 병실 기준으로는 9~10% 정도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지정, 시도 지정, 의무설치 기관 등에 마련된 음압 병상이 847병상으로 이외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닌 곳에 마련된 음압 병상까지 합하면 9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 전파 등으로 인한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 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의심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음압 병상 사용률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시도도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폐교 3~4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소방 및 통신 설비 등에 음압 병실 요소만 갖추어서 합리적인 예산으로 한 개 교실당 2개~4개의 병실로 개조하면 병실 부족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축사들과 관련 행정 기관, 학회는 폐교를 활용한 지역 사회 거점 음압 병동을 구축하는데 시급히 중지를 모아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위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사람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병(病)은 조금 결이 다르다. 약으로 고치거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의 허준(許浚)을 둘러싼 설화에 만병통치약이 등장한다. 조선 철종 때의 야담집 동아휘집(東野彙輯)에 나오는 곽향정기산(霍香正氣散)이 바로 그것이다.

젊은 시절 허준이 서울에 약방을 열고 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찾아오더니 여러 날 동안 약방을 떠나지 않고 허준 옆에 앉아 있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약방에 달려들어 오더니 "임신한 아내가 졸도를 했는데 약을 지어 달라"고 애걸했다. 옆에 앉은 선비가 "곽향정기산 세 접을 지어 보내라"고 말했다. 허준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선비의 말대로 약을 지어 주었다. 병이 나았는지 걱정하던 중 저녁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이웃 임신부가 여기서 지어 준 약을 먹고 나왔으니 세 살 먹은 아들 열병을 낫게 해 달라"고 간청했

다. 허준이 옆을 돌아보니 선비가 또다시 한마디를 한다. "곽향정기산 세 접. 약을 먹은 아이는 급방 병이 나왔다. 소문이 꼬리를 몰자 재상의 아들이 부친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찾아왔다. 이번에도 선비의 말대로 곽향정기산을 처방했는데, 재상은 바로 병이 나왔다. 이때부터 허준은 명의 소문이 나게 되었다.

만병통치약이란 게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제법 많은 증상에 효과적인 약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진통제인데, 각 가정에서 상비약이 된 지 오래다. 의사들이 요즘 코로나19 환자의 해열제로도 타이레놀을 권하고 있다. 타이레놀은 '육체적 고통' 외에도 따돌림이나 애인의 이별 통보 혹은 해고 등에 의한 '사회적 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다.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구해 낼 무기 같은 치료약이 하루빨리 등장하길 고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